

준비미흡,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한 시내버스준공영제 재검토
공영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교통 공사 설립 반대.

1. 성과 / 무료환승시스템과 버스도착예고시스템 등(새로운 서비스 경험) / 서비스 만족도 향상
2. 시내버스 준공영제 - 준비미흡 및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.
 - 시내버스발전위원회 미개최 / 준공영제 준비 및 운영과 관련한 심의 및 정책결정 기능불가
 - 공론과정 없이 관료중심 추진 / 표준원가산정, 개별 노선입찰, 수익금관리, 재계약 과정 등
 - + 서울시와는 다르게 전문가,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음.
 - 사후관리 부재 / 표준원가 책정과정이거나 노선입찰 과정, 임금지급 이후 사후관리 없음.
 - 시내버스 관련 각종 정보 / “수집 -> 가공 -> 생성 -> 정책지원 및 교통정보제공”
 - +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용을 통해 시내버스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 못함.
 - + 전문 관리인력 및 관리방안이 부재
3. 공영제 전제한 대중교통 공사 설립 반대
 - 공영제를 전제한 대중교통 공사 설립 검토 /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예상.
 - + 관리기구라면 가능, 운송효율 극대화 방안 병행논의 되어야.
 - 현실적 대안 / 내실있는 준공영제를 통해 대중교통 개혁에 대한 비전 제시
 - + 투명경영을 통한 표준원가상정
 - + 업계간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추진
4. 시내버스 활성화는 1석 8조의 파급효과
 - 시내버스 파급효과위한 효과적인 버스개혁정책 도입 등 특단의 종합정책 수립 촉구
 - 1석 8조 / ① 시내버스의 활성화, ② 도시교통문제 해소, ③ 지선-간선 개념통한 지하철 1호선 연계망 구축으로 지하철 1호선의 적자문제 해소, ④ 택시산업의 경쟁력 높임, ⑤ 주차문제, ⑥ 원도심 문제 등 도시균형발전 기여, ⑦ 급행버스시스템(BRT) 도입은 속도문제, ⑧ 정시성 문제, ⑨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 높임.
5. 운송효율 극대화 위한 특단의 대안 제시되어야..
 - 운송효율 극대화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불가피한 도시철도 2,3호선 건설에만 전념한다면, / 시내버스 자멸, 대중교통 공멸 가져올 것.
 -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전면적인 재평가
 - 시내버스 발전위원회의 조속한 복원
 - 자구노력 차원에서 업계간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
 - BRT시스템 도입 등 특단의 개선방안 모색되어야 함.